

2026-1  
CSU

GLOCAL

LETTER



2026  
JANUARY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지역혁신을 이끄는 글로벌대학, We'll 조선대학교
3.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향한 발걸음
4. 글로벌 소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로벌대학추진단

# 목 차

---

## ● 1. We'II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 ● 2. 지역혁신을 이끄는 글로벌대학, We'II 조선대학교

- 05 조선대·조선간호대 2025 글로벌 대학 최종 선정
- 07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의 컨트롤타워, 글로벌대학추진단 출범

## ● 3.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향한 발걸음

- 09 웰에이징 협력비전 '서울시니어스포럼'서 공유  
조선대-왓슨앰컴퍼니, 정밀 의료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 MOU
- 10 조선대 '알츠하이머 논문' 국제학술지 등재  
조선대-베트남, '아시아 거점센터' 설립
- 11 조선대-SK브로드밴드, 빅데이터·AI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조선대, 세계 고령친화대학 AFUGN 정회원 인증
- 12 조선대-화순군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구축' 업무협약  
조선대-유럽 해조류 플랫폼 '씨위드링크' 글로벌 네트워킹 및 업무협약 체결

## ● 4. 글로벌 소식

- 13 2025 광주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
- 15 조선대, '2025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글로벌30 우수대학 선정
- 16 글로벌대학 참여학과 공청회

# We'll 조선대학교

## vision 비전 한눈에 보기



### 비전

##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 조선대학교는!

웰에이징 혁·신 교육과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과 국가의 첨단화,  
기술가치, 산업 생태계  
발전 주도!

### 지역기업은!

탄탄한 자산학 협력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

### 지역시민은!

웰에이징 교육과  
기술로 활력을 얻은  
도시에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

### 3대 특성화 전략



## 추진과제

### 전략 A



#### 웰에이징 전방위 융합인재 양성

##### A1. 거버넌스 혁신

「We'll 조선대」를 통한  
국내 최초 웰에이징  
대학 출범

##### A2. 학사구조 혁신

웰에이징 3대  
특성화 중심  
학사구조 대전환

##### A3. 교육과정 혁신

웰에이징 산업  
선도형  
융합 혁신인재 양성

#### 목표

웰에이징 특화 인재 10,000명 양성

### 전략 B



#### 기업이 찾아오는 웰에이징 산업생태계 조성

##### B1. 연구 혁신

R&D-교육-기업지원  
통합형「웰에이징  
기술융합원」신설

##### B2. 산학협력 혁신

데이터 기반 초고속  
테스트베드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 B3. 지역상생 혁신

광주-전남  
특구 기반  
웰에이징 밸리 구축

#### 목표

기업유치 및 창업 200개

### 전략 C



#### 웰에이징 클러스터 글로벌 확산

##### C1. 글로벌 인재유치

아시아 거점 기반  
웰에이징 글로벌  
실무인재 양성

##### C2. 글로벌연구및교육확산

차세대 연구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 C3. 글로벌 가치창출

글로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글로벌 가치창출  
체계 완성

#### 목표

글로벌 인재 5,000명 양성



## 지역혁신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We'll 조선대학교**



###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2025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 웰에이징 특성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며, **초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하는 웰에이징 특성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본지정은 조선대학교가 그간 추진해온 'We'll 조선대(Well-aging + We will)' 통합 혁신 모델과 AI·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향후 5년간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글로벌 전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명확한 공공성 인정

교육부는 선정 과정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분명한 공공성 ▲AI·빅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체계 ▲조선대-조선간호대-조선이공대 간 통합 추진력 ▲광주·전남 지역 6대 특구와의 연계성을 주요 강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웰에이징 분야를 국가가 직면한 초고령사회 문제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본지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 ‘We’II 조선대’ 통합 혁신 거버넌스 구축

조선대학교는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학사-학사-석·박사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교육-기초연구-산업 실증이 선순환하는 통합형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간호·보건으로 인력 배출 역량을 기반으로 웰에이징 특성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3개 대학 총괄총장제 업무협약식

## 융합전공 확대와 IWT 신설

학사 구조 역시 대폭 개편된다. 조선대학교는 **웰에이징 융합전공을 15개 이상 신설**하고, **무전공·다전공 기반의 학생 설계형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연구·산학 통합 거점으로 **‘웰에이징기술융합원(IWT)’**을 신설해, 인재 양성-연구 성과-산업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광주·전남과 함께 만드는 ‘웰에이징 벨리’

조선대학교는 광주·전남 지역의 연구개발, 바이오·의료, 해양바이오, 문화·교육 등 6대 특구와 연계해 ‘웰에이징 벨리’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대학 연구를 연결하고, **지역 병원·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해 정밀의료·헬스케어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

**글로벌 자회사 ‘SOONOWA’ 설립**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웰에이징 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동시에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인 T-PLAY 시스템을 도입해 계획-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단계적 재정 투자를 통해 **재정 자립형 혁신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계기로, 단순한 대학 혁신을 넘어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혁신의 컨트롤타워 글로컬대학추진단 출범

### 글로컬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글로컬대학추진단을 공식 출범**하며 대학 혁신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조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혁신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업 전반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조선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성과 관리와 확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다.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부속기관, 산학협력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단계별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

추진단은 향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교육 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확대,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별·분야별 추진 일정과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서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공유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글로컬대학추진단 단체사진



## 보이지 않는 노력, 글로벌 혁신의 든든한 기반

이러한 과정 뒤에는 **글로벌대학추진단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함께하고 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부서 간 협의와 세부 과제 조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꾸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이러한 과정을 글로벌대학 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을 향해

조선대학교는 대학의 다양한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글로벌대학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추진단의 출범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변화의 시작이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 글로벌대학추진단 추진현황

| 일시                   | 내용                             |
|----------------------|--------------------------------|
| 2025.09.28.          | 한국연구재단 본지정 평가 결과 안내            |
| 2025.10.13. ~ 10.20. | 주관 운영부서별 세부과제 안내 및 설명          |
| 2025.10.20. ~ 10.31. | 주관 운영부서 세부 사업계획서(안) 작성 요청 및 접수 |
| 2025.10.22.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대학 확정 안내             |
| 2025.10.22.          | 글로벌대학 추진과제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회     |
| 2025.10.27.          | 한국연구재단 1차년도 사업비 제출             |
| 2025.11.04. ~ 11.05. | 세부과제별 주관교수 컨설팅 시행              |
| 2025.11.07.          | 조선간호대학교 세부 사업계획서 접수            |
| 2025.11.10.          | 2025학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           |
| 2025.11.10.          | 2025학년도 제1차 글로벌대학총괄위원회 의결      |
| 2025.11.13.          | 주관 운영부서별 사업비 승인 통보             |
| 2025.11.17.          | 주관 운영부서별 사업 설명회                |
| 2025.12.01.          | 글로벌대학 이행 협약서(안) 제출             |
| 2025.12.01.          | 백학학사-> 글로벌백학학사 명칭변경            |
| 2025.12.03.          | 글로벌대학 지원금 지자체 교부               |
| 2025.12.10.          | 글로벌대학 실무협의회                    |
| 2025.12.16.          | 2025학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심의           |
| 2026.01.02.          | 글로벌대학 협약 체결 완료 및 교부 결정 통지      |
| 2026.01.06.          | 2025학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심의           |
| 2026.01.09.          | e나라 시스템 사용 시작                  |

#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향한 발걸음

## 웰에이징 협력비전 ‘서울시니어스포럼’서 공유 (2025. 06. 19.)

조선대학교는 2025년 6월 19일 전북 고창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에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웰에이징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노후의 삶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의료·돌봄·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사회 정책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춘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웰에이징을 대학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고령친화 의료·주거·돌봄·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와 실천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선대는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건강수명산업 공동 연구와 실증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대학을 기반으로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중심의 웰에이징 특성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 조선대-왓슨컴퍼니, 정밀 의료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 MOU

(2025. 07. 23.)

조선대학교는 디지털 브레인 케어 전문기업 왓슨컴퍼니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기기 기반 웰에이징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왓슨컴퍼니는 뇌과학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개발·보급하며,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수면장애·치매 관련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Asia No.1 웰에이징 대학’ 비전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대학 기반 산학연 협력과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조선대 '알츠하이머 논문' 국제학술지 등재 (2025. 07. 21.)

조선대학교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알츠하이머병 연구 논문이 유전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Nature Genetic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세계 17개국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로, 교육부 G-LAMP 사업과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은 유럽계 유전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츠하이머병 다유전자 위험 점수(PRS)가 비유럽계 집단에서도 유효한지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인종 집단에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치매 관련 핵심 유전자인 APOE를 포함한 교차 인종 PRS 모델이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 글로벌 차원의 치매 조기진단 기술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조선대가 13년간 구축한 1만3000여 명 규모의 아시아 최대 치매 고위험군 개인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주치매코호트(GARD) 연구단과 G-LAMP 사업단이 국제 연구그룹과 협력해 이룬 결과다. 조선대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웰에이징 특화 연구와 글로벌 수준의 정밀의료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 07. 24.)

## 조선대-베트남, '아시아 거점센터' 설립



조선대학교는 베트남 흥옌성과 빈즈엉성에 '아시아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취업·정주를 연계하는 글로벌 협력 허브 구축에 착수했다. 조선대 대표단은 베트남을 방문해 투이러이대학교, LH 베트남 현지 법인과 3자 협약을

체결해 흥옌성 거점센터 설립을 공식화했으며, 빈즈엉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두 번째 거점센터도 마련했다.

거점센터에서는 산학협력 기반 인턴십을 비롯해 AI·빅데이터·웰에이징 분야 기초교양 선이수 교육, 현지 세종학당과 연계한 교육·연구·취업 패키지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흥옌성 인민위원회 등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역 내 1,200여 개 교육기관과 연계한 고급 인력 양성 로드맵 구축도 논의했다. 김춘성 총장은 "아시아 거점센터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핵심 과제인 웰에이징과 교육·취업·정주 모델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교두보"라며, "베트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 협력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선대-SK브로드밴드,

## 빅데이터·AI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5. 07. 28.)

조선대학교는 SK브로드밴드와 빅데이터·AI 기반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학교의 글로벌대학 추진 전략과 연계해, 지역·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웰에이징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인공지능·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웰에이징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자산학 연계 기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산업 변화에 대학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웰에이징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 (2025. 07. 28.) 조선대, 세계 고령친화대학 AFUGN 정회원 인증



조선대학교는 세계 고령친화대학 글로벌 네트워크인 Age-Friendly University Global Network(AFUGN)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공식 승인받았다. AFUGN은 고령사회 대응과 전 생애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 세계 11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조선대는 국내에서 배재대·연세대에 이어 세 번째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AFUGN 사무국은 조선대학교가 치매 예측 기반 의료 빅데이터 연구, 고령친화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지자체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령친화 및 웰에이징 실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조선대는 고령친화 대학 운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AFUGN

가입은 연령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조선대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고령친화 미래를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웰에이징 특성화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선대-화순군,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구축’ 업무협약 (2025. 11. 25.)

조선대학교와 화순군은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화순군과 조선대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 구축을 위한 기획·실행을 비롯해 바이오 분야 학과 및 연구기관 설립·운영, 지·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화순을 K-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춘성 총장은 “화순군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와 조선대의 교육·연구 역량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캠퍼스 구축과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선대-유럽 해조류 플랫폼 ‘씨워드링크’

(2025. 11. 23.) 글로벌 네트워킹 및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는 유럽 해조류 플랫폼인 SeaweedLink와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완도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연구진과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조류 관련 기업, 완도 지역 해양수산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해조류 기술과 연구 성과, 산업화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조선대의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실증 연구 성과와 식품·의약·화장품

분야 시제품 개발 사례가 소개되며, 해조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SeaweedLink 및 국내외 연구·산업 주체들과의 국제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실행을 확대하고,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산학연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25 광주글로벌컬대학 비전 선포식



AI+웰에이징 인재! 광주의 내일을 열다!  
“인재가 머무는 광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을 열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광주에 머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11월 24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학 총장단과 광주시 관계자, 학생, 지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글로벌대학 추진 과제 발표, 비전 선언, 학생과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모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2025 광주글로벌컬대학 비전선포식에서 축사하는 김춘성 총장

글로벌대학은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교육부의 국가 사업이다. 단순히 대학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주 환경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광주가 이러한 글로벌대학 전략을 통해 ‘인재가 떠나는 도시’가 아닌 ‘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였다.

조선대학교는 웰에이징(Well-Aging), 즉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 비전선포식 2부 공감 토크 중 질문하는 조선대학교 교직원(좌)/참석자 단체사진(우)





▲ 2025 광주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 퍼포먼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 돌봄, 주거,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미래 산업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 No.1 대학’을 비전으로, 관련 인재 양성과 연구,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특성화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결된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글로벌대학 비전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학생들은 AI, 웰에이징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졸업 후에도 광주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역사회 역시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와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광주광역시시는 앞으로 5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학과 함께 교육, 일자리, 정주 환경을 연계한 ‘대학·지자체 동반혁신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주하며 산업을 키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번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광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선대와 전남대, 그리고 광주시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가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25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글로벌30 우수대학 선정



조선대학교, 글로벌30 우수대학 선정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다



▲ 2025 한국대학신문대상 ‘글로벌30 우수대학’ 수상 기념 사진  
왼쪽부터 김석준 글로벌추진부단장, 김춘성 총장, 김선중 글로벌추진단장

조선대학교가 ‘2025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에서 일반대 글로벌30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웰에이징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조선대학교는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과감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웰에이징(Well-Aging) Asia No.1 대학’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학사 개편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대학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웰에이징 특화 대학을 본격 추진하며, AI·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를 아우르는 3대 특성화 중심으로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와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웰에이징기술융합원을 신설해 연구(R&D), 교육, 기업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유전체 데이터 활용, 글로벌 자회사 (주)SOONOWA를 통한 해외 진출 등도 조선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조선대학교의 글로벌대학 추진은 대학 단독이 아닌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규모 지원을 포함해 총 4,7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광주·전남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기업 지원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일자리-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30 우수대학 선정은 조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 글로벌대학 참여학과 공청회



웰에이징 중심 3대 특성화대학으로 도약  
무전공·융합전공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

조선대학교는 12월 18일 교내 입석홀에서 ‘글로벌대학 참여학과 공청회’를 열고, 글로벌대학 1차년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3대 특성화대학 신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학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교육체계 개편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다양한 참여학과 교원들이 참석해 대학이 준비 중인 변화와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대학은 웰에이징을 의료·보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학·인문·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공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과 단위의 융복합전공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과 간 협업을 강화해 교육의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특성화대학 신설과 함께 무전공·무학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공유됐다. 대학은 모듈형 융복합전공 설계,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을 돕는 전공·진로 가이드 전담 인력 배치,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글로벌소통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학생과 학과 모두가 혼란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교육혁신원을 새롭게 신설해 학과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글로벌대학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무전공·무학과 운영 개선, 교육혁신의 구체적 추진 방향, 학과 중심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글로벌대학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선중 글로벌추진단장은 “글로벌대학은 대학 본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학과와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조선대학교만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대학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조선대학교가 지향하는 웰에이징 특성화 글로벌대학으로의 전환을 학과와 함께 구체화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글로벌대학 참여학과 공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김선중 글로벌추진단장

# 2026-1 CSU GLOCAL LETTER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